

# 아이티서 고아 돌보는 할머니 이야기...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화영 동화작가

정화영 작가 '한국안데르센상' 대상 수상작 '너무 큰 소원을 말하지...'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작 다큐멘터리 방송작가 활동 도움

국제안데르센상(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다. 19세기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국적을 떠나 아동문학에 기여한 기성 작가들에게 수여한다. 한국안데르센상은 안데르센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지난 2004년에 신설됐다. 국제안데르센상의 작가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으며, 차세대 우수 작가가 될 신인 작가를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 광주일보 동화 당선자인 정화영 작가가 올해 '한국안데르센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안데르센상 심사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갖고 정화영 작가의 '너무 큰 소원을 말하지 않을게'를 아동문학 창작동화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소식을 전하는 정 작가는 "얼떨떨하고 감사

할 따름"이라며 "지난번 신춘문예 당선 때처럼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연락을 받고 보니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응모작들은 이혼, 재혼, 다문화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갈등이 부각됐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수상작은 소재가 우선 신선하고 독자의 시선을 인유적인 높이로 이끈다"며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데다 문장과 구성이 탄탄한 장편동화"라고 평했다. 작품은 세계 최빈국 '아이티'를 배경으로 한 동화다. 그곳에서 현지 고아들을 자녀로 키우며 선교하는 한국인 할머니와 자녀들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인 엄마의 아들로 한국문화와 배우며 성장한 초등생 6년 안젤로에게 어느 날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안젤로는 아이티 현실을 마주하며 혼란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 엄마 품에서 희망을 찾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나 기적을 경험하며 성장한 엄마는 안젤로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진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정 작가는 "작품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를 듣고 '도깨비를 좋아하는 안젤로는 언젠가 한국 도깨비가 아이티로 찾아와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

면 될 대답할까?' 고민을 한다"며 "결국 안젤로가 '한국 도깨비야 제발 아이티에 한번 와! 내가 너무 큰 소원을 말하지 않을게 꼭 필요한 기적만 빌게!'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동화작가로 활동하기 이전 오랫동안 방송작가로 활동한 경험이 모티브가 됐다. 그는 SBS 다큐멘터리를 하다가 아이티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다. 그때 고아를 키우며 사는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됐고, 이들의 사연은 일정 기간 발효의 과정을 거친다. "한국인 대사로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살아가는 분이었죠.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언젠가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작품에 나오는 안젤로와 다비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아이들의 이름에서 빌려왔어요. 그 아이들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정 작가는 신춘문예 당선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큰 상을 수상한 비결로 "즐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빗대어 고백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겨우 3년밖에 안 됐지만 매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동화와 청소년 문학에 빠져 읽고 쓰는 요즘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쓰고 싶은 작품이 아직 많이 있고

아이디어를 꺼내 생각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며 웃었다. 올 가을 동화 한 권을 비롯해 겨울에는 청소년 소설 출간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도 몇 권 계약된 게 있을 만큼 펄넬 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방송작가를 하며 다진 내공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정 작가는 광주, 전남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아버지가 완도 신지도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공부하며 성장했다는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는 저에게 '정서적인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라는 말에서, 창작 원동력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대략 가늠이 되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계획이라기보다 새로운 작품을 늘 구상하며 쓰고 있다. 새로 쓰는 것만큼 고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도 퇴고를 할수록 작품이 좋아지니까 고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마지막으 남편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았다. 현지 선교사가 오면 함께 대접하느라 애써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좋은 동화를 쓸 수 있도록 지지해준 분들에게도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시상식은 9월 초 아이코리아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헤비메탈 1세대 '블랙홀'의 강렬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24일 광주음악창작소 '밴디스트' '투파이브' 등 참여

1985년 결성한 이래 한국 헤비메탈 1세대로 활동해 온 '블랙홀'이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 공연을 펼친다. 오는 24일 오후 5시 광주음악창작소(구 KBS). 올드팬들이 기획에 참여하는 한편, 광주에서 활동하는 '밴디스트'와 인디씬 강자인 펑크밴드 '투파이브' 등이 오프닝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블랙홀TV가 '블랙홀 광주'를 주제로 마련했다. 공연에서는 4집 앨범에 수록됐던 연주곡을 새롭게 편곡한 '서곡'을 비롯해 '홀로서기', 'Shout it out' 등이 울려 퍼진다. 초기 앨범 중 히트곡인 '깊은밤의 서정곡', 한국 대중음악상 2개 부문에서 수상한 '삶'도 레퍼토리에 있다. '야간비행', '잠들지 않는 그리움', '블랙홀 락앤롤'도 공연장을 수놓는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낸 9집 수록곡 'AI'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내 곁에 네 아픔이', '로고



헤비메탈밴드 '블랙홀' 멤버 주상균(왼쪽부터), 이원재, 이관욱, 김세호. <블랙홀 제공>

인', '앵벌들의 합창' 등 다양한 곡들이 저마다 강렬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모든 것을 뺏아들이는 우주의 블랙홀과 같이 음악을 흡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밴드 블랙홀은 한국 헤비메탈계에서 중흥무진 활동해 왔다. 독일의 스래시 메탈 밴드 'RAGE' 출신인 빅토르 스몰스키에게 프로듀싱을 받아 8집 앨범을 작업하는 등 원숙한 관록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행사를 기획한 블랙홀릭 박철홍은 "헤비메탈 밴드 '블랙홀'은 1989년 데뷔 이래 올해까지 35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콘서트, 음반발매를 이어올 만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며 "관객들이 헤비메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음악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5만원(초등학생 이하 무료입장), 인터파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회억'

## 규방문화로 바라본 전통미·여성의 삶

정송규 개인전 '회억'...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을 '기억' 또는 '추억'이라 한다. 기억과 추억은 지나온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라는 시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 예술을 매개로 재구성한다면, 과거는 현재화되며 미래로까지 이어진다. '회억'(回憶)은 바로 과거를 토대로 미래로 연결되는 순간까지를 상징한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정송규 개인전 '회억'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정송규 작가가 10여년 전작했던 '규방문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작가는 오랫동안 작품 주제로 연구했던 누드를 과감히 내려놓고 규방문화에 파고들었다. 조각가는 규방문화를 대표하는 소품이다. 자투리 천이 자아내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분위기는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얼핏 자투리라는 말에는 은연중 사물에 대해 낮춰 부르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그러나 자투리가 예술과 인문

학과 만나면 무한한 상상력의 발원이 되기도 한다. 작품 속에 드러워진 다양한 모양의 자투리 색면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에까지 이어지며 미래로 연계되는데, 자투리 색면이 지나는 생명력은 사물의 본체가 지닌 유한함과 본질적으로 다른 아우라를 발한다. 자투리 색면을 중심으로 펼쳐진 여성의 나신은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이다. 작품은 여성의 삶을 기호화하는 동시에 다의적 가능성을 잉태한다. 한 땀 한 땀, 그리고 붓질 하나 하나가 만나 이뤄지는 화폭은 자연과 우주의 시간으로 전이되며 관람객에게 여성, 시간, 어머니, 생명 등 다채로운 키워드를 사유하게 한다. 한편 정송규 작가는 "동시대 '규방문화'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회억하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나아가 여성과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성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동학의 가치

광주시립미술관, 오늘 포럼...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강연

동학사상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철학을 견지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함을 말한다. 평화와 분단 극복, 동학의 가치를 여성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포럼이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동학에 떠밀려 가는 길-여성, 평화, 분단극복'을 주제로 미술관 포럼을 펼친다. 13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 여섯 번째 포럼 강사로 나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변혁의 역사 가운데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평화와 분단 극복, 동학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고은광순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결성한 '평화어머니회'를 토대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전쟁을 기념하지 말고 평화를 일깨워주는 취지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다니던 중 긴급조치 2호로 구속돼 대학교에서 제적됐다. 이후 한의학을 전공한 후 한의원을 경영하며 약사법분쟁에 참여했다. 또한 1998년부터 호주계 폐지를 비롯해, 부모



고은광순 이사장

성 함께 쓰기, 종교 법인 법제정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2015년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해월의 딸, 용담할매' '몽이의 꿈' 등 여성동학 다큐소설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의 의미와 가치 등을 매개로 동학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고은광순 이사장의 철학과 활동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동학의 정신 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